

글로벌비스

2009년 사상 최대 실적 이뤘

글로벌비스(대표 김경배)가 전년대비 4.2% 증가한 매출 3조1,928억원, 영업이익은 12.5% 증가한 1,453억원, 당기순이익은 61.3% 증가한 1,898억원을 달성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글로벌비스는 2009년 경기침체와 물동량 감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물류에서 매출 8,367억원, 해외물류에서 9,515억원을 비롯해 CKD사업부문에서 1조2,244억원, 중고차 사업 및 기타 매출 1,801억원 등의 실적에 힘입어 전 사업 영역에서 고른 성장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물류 사업 전반에 걸친 성장과 함께 특히 중고차경매사업의 경우 출품대수가 전년대비 27%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비스 관계자는 “지난해 세계적 경기침체와 자동차 산업의 위축으로 인해 어려운 경영환경이 계속되었으나 지속적인 물류 혁신 활동을 통해 고객사 물류 경쟁력 제고 및 사업 전반의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비스는 완성차 해상운송 및 현대제철 고로가동에 따른 원료 운송 등 본격적인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해 금년 국내 3조8,400억원, 해외법인 1조1,900억원 등 총 5조300억원의 매출목표를 계획하고 있다.

대한통운

이원태 사장 취임

이원태 신임 대한통운 사장은 1월13일 대한통운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올해를 “NEW대한통운”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

혔다.

이 날 오전 서울 서소문동 대한통운 본사 13층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 행사에서 이 신임 사장은 “막중한 임무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그룹의 조기 정상화와 회사가 국내 정상을 넘어 선진 일류기업으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회사가 창립 80주년을 맞는 올해를 선진 일류기업 ‘NEW 대한통운’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 말하고 “영업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 그룹의 5대 핵심경영 방침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아름다운 기업문화를 꽃피우는데 노력하고 특히 회사가 이어온 48년 무분규의 아름다운 노사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것”이라며, “업계와 국가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는 선두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기업이 되자”고 강조했다.

특히 “어려운 고비마다 ‘집념과 도전’의 창업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해온 그룹의 저력과 하나된 노사의 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그룹 정상화에 적극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이원태 대한통운 사장은 지난 72년 금호석유화학으로 입사해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 등 그룹의 주요계열사를 두루 거쳤다. 그룹 내에서는 중국통운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글로벌 경영 감각이 탁월하며, 인화와 노사상생을 중시하며 그룹 내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STX팬오션

올해 적극적 선대확장 추진

STX팬오션(대표 이종철 부회장)이 경쟁선사 대비 빠른 흑자전환 달성과 시황개선 기대에 힘입

어 올 한해 신조선 17척을 인수하고 2억달러가 넘는 신규투자를 단행하겠다는 적극적인 선대확장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STX팬오션은 1월12일 2010년 제1차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투자계획을 비롯한 사업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TX팬오션 이종철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0년은 지난 해의 경험을 거울 삼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한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 정진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장기 계약 비중을 확대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구축하고 신시장/신사업 개척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전력을 다하자"고 밝혔다.

STX팬오션은 2009년 한 해 동안 총 11척의 신조선을 인수한 바 있다. 벌크선 5척, 컨테이너선 1척, 탱커선 5척으로 벌크부문과 비벌크부문의 균형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경영방침에 부합한 것이었다.

이어서 2010년 인도가 예정된 선박이 모두 17척이며 컨테이너 1척과 탱커 1척은 1월 중에 인도될 예정이다. 크선 12척을 비롯해 자동차선(PCTC) 2척, LNG선 1척 등도 차례로 인수될 계획이다.

동시에 2억달러가 넘는 신규투자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STX팬오션의 경우 타 경쟁선사 대비 빠른 흑자전환과 실적 반등을 달성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투자전략 수립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경기 회복에 따라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노후 선박의 해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판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선대를 확보해 뚝으로써 원가경쟁력을 높여나가 보다 경쟁력 있는 선사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STX팬오션 관계자는 "현재 사선 77척을 포함한 330여 척의선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 사선대규모 95척과 총 운영선대 500여척을 달성하고, 2012년 이후에는 총 사선대규모 120척을 넘어섬으로써 글로벌 초우량 선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해운

파나막스 벌크선 1척 매입

외향해운 진출 10년차의 중견 해운선사인 인터해운(대표 이용배)이 최근 파나막스 벌크선 1척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인터해운은 작년말 일본 이마바리조선에서 2000년 건조한 7만4,000DWT급 파나막스 벌크선 Willi Salamon호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터해운 측은 "선박 매입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 조만간 선박을 인도받는 대로 1년여간 대선영업을 할 계획이며 이후에 직접 선박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해운은 1만DWT급 내외의 소형 벌크선 8척으로 원목운송과 철제품 운송을 주로 해왔던 인터해운은 이번에 파나막스 벌크선 Willi Salamon호 매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중대형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터해운 관계자는 "향후 선가 및 금융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로 파나막스급 이상 중대형 선박들의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형 선박들이 확보되면 앞으로 곡물이나 석탄 운송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금상선

노후컨선 2척 해체매각

장금상선(대표 정태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적극적인 노후컨테이너 선박해체 움직임을 이

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사는 올해 1,100TEU급 컨테이너선 'Golden Merchant' 호(1985년산)와 'Golden Trade' 호(1988년산)를 인도 해체조선소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선박브로커인 GMS에 따르면 매각가격은 LDT당 약 340달러로 총 600만달러에 매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금상선은 작년 7월에도 1,552TEU급 'Golden Companion' 호(1982년산)를 LDT당 250달러, 총 230만달러에 매각한 바 있다.

한진

제 3세계 어린이 후원물품 물류후원

(주)한진(대표 석태수)이 국제기아·질병·문맹 퇴치기구인 사단법인 JTS(Join Together Society, 이사장 법륜)를 후원한다. 한진은 JTS가 북한 아이들에게 전달할 후원물품에 대한 국내 운송을 약속하며, 물류부문 지원기업으로 참여한다고 최근 밝혔다.

한진은 서울, 용인에서 울산항까지 어린이 문구류와 라면상자 등 10톤 분량의 물품운송을 위해 5톤 차량을 지원하고, 물류부문의 전 과정을 담당했다. 한진택배 관계자는 “작은 힘이나마 제3세계 어린이 후원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전문 물류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단법인 JTS는 '아시아의 빈곤과 아픔은 아시아인의 손으로 해결하자'라는 목표 아래, 전 세계, 특히 아시아 지역의 기아, 질병, 문맹퇴치를 위한 긴급 구호활동을 펼치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단체다.

한진해운

창립60주년 기념 사사발간 기념회 개최

한진해운(대표 최은영 회장)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사사(社史)를 발간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1월2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한진해운 회장과 최장현 국토해양부 제 2차관, 국회 장광근, 조윤선, 이영애 의원, 한국해양대 오거돈 총장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사편찬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최은영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진해운은 지난 1949년 우리나라 최초 국책공사인 대한해운공사로 출범하여 한국해운의 서막을 열었다”며 “하지만 출범 후 한국전쟁의 발발, 두차례의 해운 불황과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거듭 발전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은영 회장은 “건국 초창기에는 국민 생존 물자의 운송으로, 한국전쟁기에는 국가 안보의 수호자로서, 수출 한국 시대에는 우리 상품을 세계로 이어주는 교량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경제 발전과 함께 해왔다”며, “지난 60년의 항적을 나침반으로 삼아 '세계인과 함께 하는 새로운 한진해운 60년'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진해운에 따르면 1949년 25척, 4만톤의 대한해운공사로 출범, 지난 60년간 한국전쟁 및 IMF 등의 국내 경제 위기 등의 상황하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적기 수송과 외화획득을 통해 현재 200여 척의 선대를 보유한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선사로 성장했다. 또한 오늘날 한국해운이 1,235척의 선박과 4,600만톤의 선복량을 기록, 세계 6위권의 해운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국토해양부 최장현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진해운의 창립 60주년 사사(社史) 발간은 단지 한 기업의 역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마치 한국해운의 발자취를 들여다 보는 것과 같이 해운인이 흘렸던 삶의 역사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고 전했다.

최 차관은 또 “맨처음 컨테이너해운의 도입을 통한 지속적인 선대확충, 세계 우수선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경쟁력 확보, 세계 주요 항만에 컨테이너터미널 확장 및 기항 등 한진해운의 위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지난 60년의 해운 역량의 전통은 우리나라가 해운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원동력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양밍라인의 로버트 호 사장은 한진해운의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며 “한진해운과 양밍라인은 아시아-미국동안 항로 서비스를 시작으로 견고한 상생관계를 맺어왔다”며 “향후 상호 발전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해운산업의 발전적인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약 2년간 학술 및 영상 등의 방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 700페이지 분량 2권의 사사를 완성하여 해운 물류 단체 및 학교 등에 제공 다양한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현대상선

ERP 시스템 본격 가동

현대상선(대표 김성만)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현대상선은 지난 2008년 6월 PI(Process Innovation, 업무 프로세스 혁신)추진팀을 신설해 전 세계 24개국, 110여개의 법인과 지점을 하나로 묶는 ERP 시스템을 개발해왔고 1년4개월 만에 오픈했다.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란 재무회계, 채권/채무, 구매/자재, 자산, 경영관리 등 기업의 모든 부문에 걸쳐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시스템을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한 통합데이터 베이스를 말한다.

현대상선은 이번 ERP시스템 개발에 대해 “해운업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산업이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이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상선은 핵심정보를 ERP시스템에서 분석 및 관리해 신속한 경영정보 제공, 생산성 향상, 그리고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선박에서 연료나 기자재 구매 시 본사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토록하고, 공급업체 평가체계도 만들어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동시에 구매 원가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상선 측은 “지난해 해운시황의 악화로 어려운 와중에서도 ERP 준비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ERP 시스템 가동에 따라 회사의 업무 효율성이 한층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임직원들이 보다 쉽게 ERP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해외 현지 직원을 본사로 초청하여 교육을 마쳤으며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사업단장 선임



부산항만공사(BPA)는 최근 북항재개발사업단장에 조성원 부산시 건설방재국장을 선임했다.

부경대학교 토목공학과와 부산대 대학원 도시계획과를 졸업한 조 단장은 지난 1971년 부산

시 수도시설관리소 지방토목기원보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부산시 도로계획과장, 하수도과장 등을 역임, 현재 부산시 건설방재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난달 공개채용을 통해 73명이 지원했던 북항 재개발사업단장직은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사업인 북항재개발사업을 맡아 국비 확보와 민간사업자 선정, 공공시설 개발 등을 총괄하게 된다.

BPA는 이 밖에도 7급 행정직과 기술직 합격자 10명을 함께 발표하고 이들의 신원 조사가 끝나는 대로 부서 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지부장회의 개최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민경태)은 지난 1월20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민경태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및 팀장과, 전국 15개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을 통하여 '전국지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0년도 본부(연구원)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및 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공단이 당면한 주요현안사항 및 공단의 비전 및 핵심가치 달성을 위한 실천 방안과 더불어 지부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한편 민경태 이사장은 고객만족도 향상, 안정적인 재정 운영, 공단 위상 강화를 위해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고 특히, 지부장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장중심의 경영체제를 확립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항만공사

사내 영어회화교육 실시

울산항만공사(UPA)는 직원들의 세계화에 부합

되는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2월2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에서 영어회화 교육을 시행했다.

UPA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어학능력 수준에 따라 3개 반으로 편성해 근무시간 전인 오전 8시부터 1시간씩, 매주 3회 외부강사를 초빙해 교육했다.

또한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국외 대학의 항만관련 석사과정에 직원 1명을 파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 학교는 영국 카디프대학교의 marine policy 과정과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대학의 maritime economics & logistics 과정이다.

이재익 UPA 사장은 "세계속의 울산항에 걸맞은 인재양성을 위해 직원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예정이며,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인천항만공사

관련 업·단체 정보화컨설팅 전개

인천항만공사(IPA, 대표 김종태)가 인천항 관련 업·단체를 위한 정보화 컨설팅을 펼치기로 해 주목된다.

IPA에 따르면 특히, 이번에 추진하는 정보화 컨설팅은 '프로보노'의 일환으로 인천항만공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화 역량과 전문성을 인천항 관련 업·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프로보노(pro bono)'란 '공익을 위하여'라는 의미의 라틴어 'pro bono publico'에서 온 말로, 공익을 위해 무료로 봉사하는 것으로 주로 의사, 변호사, 컨설턴트 등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이다. 의사들의 의료봉사,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상담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흔히 '재능 기부'라고 불리기도 한다.

IPA는 인천항 항만 업·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보화 수준이 미흡한 부분의 정보화 요구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화 컨설팅 자문단'을 구축했으며, 다음 달까지 관련 업·단체를 방문해 수요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구성된 IPA의 정보화 컨설팅 자문단은 구자운 경영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며, IT혁신팀의 팀원들이 실무를 맡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외부자문위원으로 김주용 고문과 배준수 위원과 노홍승 박사가 포함되어 IPA가 추진하는 I-PLUS 사업과 연계하고 전문적인 분야 까지 고루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태 IPA 사장은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는 I-PLUS 사업과 연계해 인천항만 전체의 유비쿼터스화를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IPA는 I-PLUS(Incheon-Port Logistics & Ubiquitous System) 1단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오는 2012년까지 총 147억원을 투입해 인천신항, 배후부지 조성 등 신규 항만인프라 건설에 IT체계를 연계하는 등 인천항을 유비쿼터스 항만으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천항만공사(IPA)는 기획재정부 주관 2009년 고객만족도조사에서 23개 주요 공공기관 중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IPA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1월29일 2010년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13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공기업 23개, 준정부기관 72개, 기타공공기관 41개 등 총 136개 기관의 고객 Pool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기업1(SOC유형)로 분류된 인천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함께 최고 등급인 '우수' 집단에 속하게 됐다.

IPA 관계자는 "인천항 고객 감동을 이끄는 리

더'라는 CS 비전에 맞춰 인천항에 기반을 둔 모든 기관 및 업·단체의 지원으로 고객이 다시 찾고 싶은 인천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9년 한 해 동안 △CS 스폰서십 개발(인천항 고객만족 교류협약 체결) △기업고객담당제 운영 △인천항 고객만족기획단 공동과제 추진 △고객서비스트리 개발 △고객애로사항 개선 경진대회 운영 등과 같은 CS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케이엘넷

'비전달성 모멘텀 2010' 선언

물류IT전문기업 케이엘넷(대표 박정천)은 1월12일 "비전달성을 위한 모멘텀 2010"을 경영슬로건으로 하는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매출목표를 전년대비 43% 성장한 450억원, 영업이익 36억원으로 정하고, 기존 주력사업인 전자물류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솔루션 해외수출 및 신성장동력 기반 확보에 더욱 주력해 비전달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케이엘넷은 이를 위해 △주력사업의 역량강화를 통해 사업영역 및 시장 확대 △LED 등 신사업의 매출 본격화와 미래 성장기반 마련 △현지 영업력 강화를 통한 해외매출 확대 △제품 경쟁력과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통해 수익성 강화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5대 경영과제로 제시했다.

케이엘넷은 먼저 주력사업인 전자물류서비스(e-Biz)의 고도화 및 다각화를 통한 고객확대 및 시장지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교통과 물류를 연계 통합하는 솔루션 구축 및 서비스 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해외매출 확대를 통한 성장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인데, 해외지사 설립 등 현지 영업력 강화를 통한 대형 프로젝트 수주 실현과

함께 LED 조명의 중국 시장 개척 등을 통해 수익 다변화 및 시장 선점에 나선다.

이와함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를 앞두고 지난해 말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 1호를 획득한 로지스빌의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독자적인 솔루션 구축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매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사업부문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국내 항만시설에 LED조명 교체사업이 본격화되는 등 새로운 매출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며, 더불어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한중간 컨테이너위치추적서비스센터 구축사업도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글로벌 물류IT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것으로 보인다.

케이엘넷 박정천 대표는 “2010년은 1대 주주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추진되는 등 비전2020 달성을 위한 모멘텀이 되는 중요한 해”라고 밝히고, “이에 걸맞는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특화된 기술개발과 서비스, 고객관리,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하는 케이엘넷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선박운용

2012년 부산에 본사 설립



한국선박운용(주)(KOMARF)과 부산시가 선박금융 중심지 육성을 위해 기관 유치 및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와 KOMARF 및 대표주주, (주)부산은행, 부산상공회의소는 1월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갖고 부산지역에 선박금융 전문기관의 유치와 설립을 위한 참여주체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해 선박금융 중심지로 부산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MOU체결에 따라 KOMARF는 향후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선박금융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며, 부산은행과 부산상공회의소가 직접 출자 등의 지원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부산시도 선박금융 중심지로의 발전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향후 법적 토대 마련을 통해 직접 출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KOMARF가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로 본사를 이전하게 되며, 국토해양부의 KOMARF 금융업 겸업 허가, 자본금 증액, 금융위의 금융업 허가 등 제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2년에 부산 본사 이전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해양대

'졸업인증제' 전면 시행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오거돈)가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전면적인 졸업인증제를 시행한다.

한국해양대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교육역량 강화 및 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0학년도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졸업인증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국립대 중 최초로 전면 시행되는 졸업인증제는 전체 필수인 외국어영역과 함께 컴퓨

터·사회봉사·해양특성화·전공영역 등 4개 영역(선택) 등 최소 2개 영역에서 인증자격 및 인증 시험 등에 합격해야 졸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 부산지역 국립대 중 취업률 1위에 오른 한국해양대는 졸업인증제 시행에 따라 졸업생들의 실무능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물론 취업률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졸업인증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대상은 2010학년도 이후 신입생 전원이다. 단, 동등학년 복학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등은 제외된다. 또한 외국인전형 합격자, 체육특기자, 귀순동포, 장애인, 시간제 등록생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졸업인증 분야는 외국어영역, 컴퓨터영역, 사회봉사영역, 해양특성화영역, 전공영역의 5개 영역으로 그 중 외국어영역은 필수이며, 기타 영역 중 1개 이상 영역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

외국어영역의 경우 영어·중국어·일본어·한자 등의 공인 외국어 시험에서 학과별 지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해양체육학과의 경우 총장이 지정하는 외국어 교과목 이수로 충족 가능하다.

선택영역 중 컴퓨터영역은 컴퓨터 및 정보화 관련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사회봉사영역은 사회봉사활동을 30시간 이수해야 한다. 또 해양특성화영역은 '승선체험실습' 과정이 포함된 교과목 또는 '해양문화체험특강'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전공영역은 전공 관련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나호수 교무처장은 "한국해양대는 2008, 2009년 2년 연속 부산지역 국립대 중 취업률 1위에 올랐다"며 "이번 졸업인증제 시행에 따라 졸업생들의 실무능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기대돼 향후 취업률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국해운조합

'설연휴 특별수송 안전대책' 마련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은 1월28일 설연휴 여객선을 이용하는 귀성객의 안전하고 원활한 수송을 위해 '설연휴 특별수송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수송시설 점검 등 특별수송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설 연휴 특별수송기간은 2월 12일~16일이며, 조합은 다음달 9일까지 특별수송 사전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해운조합은 준비기간 동안 해양경찰서·지방해양항만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특별수송 기간 동안 운항할 여객선 149척의 안전점검과 11개 여객선 터미널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여객선 승무원, 선사 및 터미널 직원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상악화시 대처 요령·비상대응 요령·출항전 안전유무 확인 절차 등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해운조합은 각 지역별로 해양경찰서, 관계기관 등과 사전대책 회의를 열고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해 구난구조 대비태세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승선권 인터넷 예약·예매(<http://isaland.haewoon.co.kr>) 터미널 내 여객선 이용 안내 활동 강화 등 이용객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번 설 연휴도 귀성객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객 선사들은 올해 섬 귀성객이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평상시보다 42% 늘어난 총 4831회 여객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또한 운항선박은 평시 대비 4척 증가한 149척을 운항한다.